



“손흥민 쓸까? 말까?” 고민에 빠진 벤투 감독

오는 16일 중국전 못 이기면 2위...혹사 우려는 부담

조 1위를 위해 투입해야 할까, 토너먼트를 위해 아껴야 할까. 파울루 벤투 감독이 '손흥민 딜레마'에 빠졌다.

한국은 16일 오후 10시30분(한국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의 알나얀 스타디움에서 중국과 2019 UAE 아시안컵 C조 조별리그 최종전을 갖는다. 이 경기는 조 1위를 결정짓기 위한 단판 승부라고 봐도 무방하다.

한국과 중국은 나란히 2승을 거두고 있다. 맞대결에서 이기는 팀이 1위로 토너먼트에 오른다. 중국은 앞선 두 경기에서 5골을 넣고 1골을 빼앗겨 골득실 +4를 기록 중이다.

한국은 실점이 없는 반면, 득점이 2골에 그쳐 골득실에서 중국에 밀린다. 비길 경우 1위는 중국의 차지가 된다.

아직 다른 조의 윤곽이 드러나진 않았지만 1위로 16강 토너먼트를 시작하는 것이 2위보다는 유리하다. C조 1위팀은 A·B·F조 3위팀 중 한 팀과 2위팀은 A조 2위팀과 16강에서 맞붙는다.

조 2위로 밀려도 16강전은 큰 부담이 없다. 1위와 2위의 차이는

강호들이 슬슬 고개를 내미는 8강부터 드러난다.

흐름상 C조 2위의 8강 상대는 이란이 유력하다. 이란은 언제 만나도 쉽지 않은 상대다. 1996년 UAE 대회부터 2011년 카타르 대회까지 한국과 이란은 5회 연속 8강에서 격돌했다. 한국이 세 차례 웃었지만 늘 쉽지 않았다. 1996년 8강에서 당한 2-6 대패는 한국 축구사의 큰 상처로 남아있다.

좀 더 수월하게 토너먼트를 치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국을 꺾어야 하지만 상황이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앞선 두 경기에서 노출된 답답한 공격력은 중국전 전 망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현 상황에서 무더진 창끝의 날카로움을 더할 수 있는 변수는 손흥민 뿐이다. 손흥민은 14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리그 경기를 마치고 비행기에 몸을 실을 예정이다.

손흥민의 중국전 출전 여부를 두고 팬들 사이에서는 기대보다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경기를 불과 이틀 앞두고 현지에 입성한 선수가 뛰는 것만으로도 무리가 따른다는 것이다.

12월부터 지금까지 손흥민은 12경기를 소화했다. 맨유전을 포함하면 3~4일에 한 번 팔로 실전을 치렀다는 계산이 나온다. 아무리 체력이 좋은 손흥민이라도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몇몇 공격수들이 침체를 겪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확실한 카드를 아끼는 것도 어려운 노릇이다.

손흥민의 중국전 출전은 외신에게도 큰 관심사다. 11일 키르기스스탄전 종료 후 기자회견에서는 두 명의 외신 기자들이 손흥민과 관련된 질문을 던졌다.

벤투 감독은 명쾌한 답을 주지 않았다. “손흥민은 주말에 계입을 뛰고 올 가능성이 높다”는 대목은 기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혔으나, “지금 좋은 몸 상태로 있기에 일단 합류한 뒤 다음 경기에 바로 내보낼지, 16강전부터 내보낼지 판단하겠다”는 말에서는 기용이 가능하다는 뉘앙스가 분명했다.

어떤 선택을 내리든 어려운 결정을 분명하다. 벤투 감독의 고민이 시작됐다.

뉴스스

KT 강백호, 2년차 최고 연봉에 계약...1억2000만원

“올해도 구단과 팬들의 기대에 보답할 것”

프로야구 KT 위즈(대표이사 유태열)가 강백호(20)와 2019년 연봉 계약을 체결했다.

연봉은 데뷔 첫 해였던 지난 시즌 2700만원에서 34% 인상된 1억 2000만원에 계약을 맺었다.

이는 KBO 리그 2년차 역대 최고 연봉이다. 연봉 인상률은 2007년 KBO리그 2년차 역대 최고 인상률인 400%를 기록한 류현진(LA 다저스)에 이어 2위의 기록이다.

강백호는 지난해 138경기에 출전해 타율 0.290(527타수 153안타)에 29홈런 84타점을 기록했다.

특히, 강백호는 개막전에서 역대 최초 고졸 신인 데뷔 첫 타석 홈런을 터뜨리며 강한 인상을 남겼고 1994년 LG 트윈스 김재현(SPOTV

해설위원)이 기록한 21개를 뛰어넘는 29개의 홈런을 날려 고졸 신인 최다 홈런 신기록을 세웠다. 폭발적인 타격과 당당한 패기를 앞세워 KT 구단 창단 최초로 신인왕을 수상했다.

이승용 KT 단장은 “지난 시즌의 활약과 팀 기여도를 반영한 결과”라며, “강백호는 KT 구단뿐 아니라 KBO 역사에 남을 뛰어난 활약으로 프로야구 팬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했고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선수이다. 향후 구단의 프랜차이즈 스타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백호는 “좋은 대우를 해 주신 구단에 감사하다”며 “지난 시즌 활약에 만족하지 않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올 시즌에도 구단과 팬들의 기대에 보답할 수 있는 선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현, 세계 76위 클란과 호주오픈 1회전

내일 오전 11시께... 지난해 한국 선수 최초 4강 진출 쾌거



한국 테니스의 간판 정현(23·한국체대·세계랭킹 25위)이 15일(한국시간) 호주오픈 1회전에 나선다.

호주오픈 테니스대회 조직위원회

가 발표한 14, 15일 경기 일정에 따르면 정현은 대회 이틀째인 15일 오전 11시께 1회전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정현은 8번 코트의 두 번째 경기

로 1회전을 치른다.

이 코트에서 오전 9시에 왕창(중국·21위)과 피오나 페르포랑스(102위)가 여자 단식 1회전을 치른다.

이어 정현의 1회전 경기가 열린다. 여자 단식 경기가 보통 2시간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현의 1회전은 오전 11시를 전후해 시작될 전망이다.

정현의 1회전 상대는 세계랭킹 76위 브래들리 클란(미국·76위)이다.

정현은 1회전을 이기면 2회전에서 샘 퀘리(미국·48위)-피에르위그 에르베르(프랑스·53위)의 1회전 승자와 맞붙는다.

지난해 이 대회에서 정현은 당시 세계랭킹 4위였던 알렉산드르 즈베레프(독일·4위), 14위였던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1위) 등 세계적인 강호를 꺾고 한국 선수로는 최초로 메이저대회 4강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준결승에서는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스위스·3위)와 맞붙었고 부상 탓에 기권했다.

전남드래곤즈, 세르히오 피트니스코치 영입

전남드래곤즈(사장 조청명)는 선수들의 체력 및 밸런스 강화를 위해 세르히오 가르시아 피트니스 코치를 영입했다.

세르히오 피트니스 코치는 스페인 국적으로 2009년 피트니스 코치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하여 Benfica와 Estoril Praia(포르투갈 1부)에서 GK코치를 거쳐 East Riffa(바레인 1부)에서 피트니스 코치를 하였다.

또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FC 비르셀로나 유소년 스카우터 경력

도 가지고 있다.(Scouter FC Barcelona in Galicia)

전남드래곤즈는 세르히오 피트니스 코치가 체계적이고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으로 선수들의 체력 강화 및 밸런스 유지, 부상 예방 등을 함으로써 팀 경기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 코칭스텝으로 새롭게 합류한 세르히오 피지컬 코치는 “감독님을 도와 선수들의 부상 방지와 회복뿐만 아니라 체력도 신경 써서



경기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선수들의 몸 상태를 최적으로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평양=김승호 기자

자연산 돌레길

■ 실이 있는
지리산 돌레길

바쁜 일상, 각박한 도시에서 벗어나
 지리산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지리산 돌레길은 지리산 주변 3개도(전북, 전남, 경남) 5개 시·군(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을 잇는 295km의 장거리 도보길로 전편 구간은 지리산순천, 창세미골, 회연사, 선전강, 운주루, 피아골, 연곡사 등을 지나며 주천-산동 구간부터 묵아재-기탄 구간까지 총 6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